# 생약협회 지황 시범포 설치

##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 소재 2천4백평

## 우량 종근 생산 농가에 확대 보급계획

◇ 지황밭

본 협회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지황 종근 계약재배가 4월말 현재 거의 파종 마무리 됐다.

총 파종면적은 약 13만여평, 생산량은 생지황의 경우 2천5백66t, 건지황일 경우 5백10t을 예상하고 있다.

지역별 지황 파종현황을 살펴보면, 전남 완도군 9천평, 충남 논산군 8천평 충북 제천 1만1천5백평, 경북 김천 5천평, 경북 경주시 4천평, 상주시 1만5백평, 영주시 6천2백평, 경기도 연천군 7천평, 포천군 7천4백평, 안성군 3만2천1백평, 강원도 정선군 5천평, 경남 거창군 1천평 등이며 기타 보성 함양 남해 무주군에서도 일부 파종했다.

한편 본 협회에서도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 용정리 소재 8a(2천4백평)의 밭에 지황종근을 심고 시범포를 만들었다. 이 시범포는 과학적 영농법에 의해 관리되며 우량종근을 생산 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 계약 재배 무산으로 시호농가 타격 클듯

지난 90년 이래 본 협회가 실시해오고 있는 삼도시호 계약재배가 올해 무산됨에 따라 농가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삼도시호는 본 협회가 수출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일본으로 부터 종자를 분양받아 재배회원들에게 계약재배 해온 품목.

지난해 까지 삼도시호 재배면적은 3백33ha, 2천3백50농가에서 약 7만1천7백20kg이 생산, 약 12억 삼당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사계절이 뚜렷하여 재배적지로 평가받은 삼도시호는 국내산이 그 품질이 뛰어나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이를 일본에 수출함으로서 외화획득은 물론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큰 몫을 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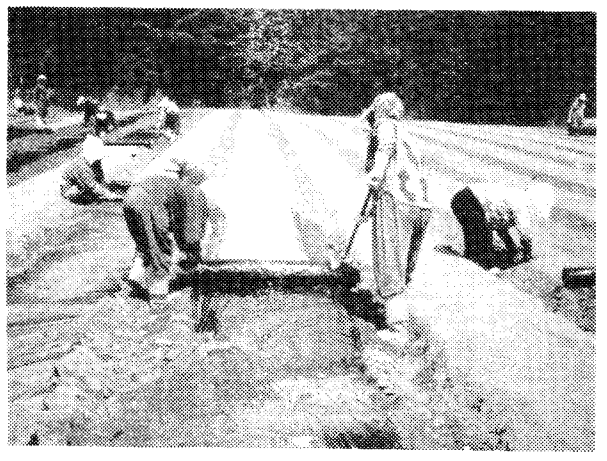
그러나 93년산 삼도시호의 과잉생산분이 재고량으로 누적돼 일본이 올 한해 삼도시호의 휴작을 통고해 온 것.

이 사실을 미리 접하지 못한 일부 재배농민들은 그동안 자체 채종한 삼도시호 종자를 이미 파종해 놓은 상태이며 전남지역의 경우 현재 파악된 시호 파종면적은 약 50만평에 이른다.

따라서 협회는 삼도시호 또한 국내 생약농업의 생산기반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파종한 시호에 대한 구체적인 판로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 황기파종 마무리

### 총재배면적 1천8백30ha



◇ 황기파종 장면

봄 파종이 한창이다. 4월 말 현재 황기 당귀 등 국내 약용작물의 파종기를 맞아 농민들의 일손이 어느때 보다 분주하다.

당귀는 이제 막 파종에 접어들었으며 황기 파종은 거의 마무리 단계.

95년 황기 총재배면적은 약 1천8백30ha(3천5백여 농가)이며 3천2백여t의 생산이 예상된다.

본 협회가 실시한 95년 황기 지역별 파종면적 및 생산예상량 조사자료에 따르면 경기 4백6ha(3백4농가)에 생산상정량은 6백50t, 강원 8백65ha(1천4백79농가) 1천6백48t, 충북 4백55ha(1천3백70농가) 8백63t, 충남 26ha(52농가) 27t, 전북 6ha(26농가) 6t, 전남 2ha(10농가) 14t, 경북 40ha(2백78농가) 61t 예상이다.

# 사 설

## 상설매장에 거는 기대

옛부터 전래되어 오던 순수민간요법이 대중매체를 통해 많이 소개되고 있어 자연스럽게 각종 약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땅에서 자란 우리 약재가 몸에도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마침 국산한약재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상설매장이 경동한약상가내에 개설됐다. 그렇지 않아도 값싼 수입약재의 범람으로 국산한약재의 생산은 날로 위축되고 있고 일반 소비자들 또한 수입산과 국산을 구분할 수 없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에서 국산한약재상설매장의 출현은 더욱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생약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한국생약협회가 개설한 국산한약재상설매장은 40평 규모의 편의점식 매장에 국내에서 재배 자생되는 70여종의 약재가 6백g, 1kg 단위의 깔끔한 소포장으로 진열, 판매된다. 특히 산하 재배 회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생산해 낸 약재에 생산자표시를 하게 함으로서 소비자들이 질 좋은 국산한약재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믿고 구입해 갈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수집상들이 농가로 부터 한약재를 사들여 다시 한약방이나 한의원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던 것이 이제 생산자→소비자로 직거래가 형성됨으로서 소비자 보호는 물론 생산농민들의 판로확보에도 큰 몫을 해 내리라 기대가 크다.

## 계약=권리+의무

지난해에 한국생약협회에서 백출, 시호, 황기 등 품목에 대하여 계약재배를 실시했다고 한다. 그중 황기의 경우 계약면적이 1백30여 ha에 1백80호의 농가가 참여하여 예상 생산량을 1백50톤으로 보았으나 실제 수매량은 43톤 정도로 약 30%정도만이 계약을 이행한 셈이다. '93년의 경우 일본 수출용으로 삼도시호(미시마시호)를 계약재배 했으나 수매시기의 내수시장 가격폭등으로 수출계약 물량확보가 어려웠으며 급기야는 시장가격 조절용으로 중국산 시호를 일부 수입하기 까지 하였다. 계약은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농산물의 계약재배는 협약 당사자간에 적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그 정도 가격이면 되겠다는 계산하에 재배에 임하게 된다. 그러나 수확시기가 되고 수매가 시작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계약품목이 풍작이 되면 계약 생산물량 이상이 수매장으로 몰리고 흉작이 되어 가격이 폭등하면 생산물량의 대부분이 시장으로 출하된다. 이것이 우리 농촌사회의 일반적 현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금년에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지황을 자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국산 종근을 도입하여 계약재배에 들어갔다고 한다. 협회에서는 당초 계약액대로 전량 수매는 물론 재배기술을 지도할 의무가 있으며 생산자는 협회의 기술지도를 이행하여 양질품을 생산, 수매에 응할 의무가 있다.

사고의 대전환으로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이번의 계약재배가 성공하면 이를 본보기 삼아 많은 작물에 대해 대량 소비업체와의 계약재배가 이루어질 것이고 농민은 판로, 가격 걱정없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회의 지황 계약재배가 성공의 본보기가 되길 기대한다.

## 내방

▲도상학 연구위원 ▲성낙술 연구위원 ▲남정룡 고문 ▲정형모 부회장 ▲유진걸 부회장 ▲박재문 황인구 부회장 ▲이사 ▲김창한 이사 ▲이문섭 이사 ▲이성덕 구리시 사무소장 ▲허수 순천시 사무소장 ▲조광호 정선군 사무소장 ▲이한승 제천군 사무소장 ▲이광우 충북도 공판창장 ▲신상섭 단양군 공판창장 ▲류복규 영주시 공판장장 ▲최상환 경주시 사무소장 ▲양성진 진주시 사무소장

## 화촉

**송경태 명예회장 장남 11일 나윤예식장**

본회 명예회장인 송경태씨의 장남 영진군이 5월11일 목요일 오후1시 나윤예식장에서 정연태씨의 삼녀 미영양과 화촉을 밝힌다.

## 인사

**「任」**

△임홍열(경북 청송군 사무소장) 95·4·1일부
△채종만(경북 문경시 공판장장) 95·4·1일부

**「免」**

△정춘순(협회 중앙공판장 과장대리) 95·4·1일부 △한훈석(경북 영양군 공판장장) 95·4·1일부 △강은종(경북 청송군 사무소장) 95·4·1일부 △박석면(전북 순창군 공판장장) 95·4·1일부 △정길량(전북 정읍군 사무소장) 95·4·1일부 △양봉식(전북 완산구 공판장장) 95·4·1일부 △황의권(전북 남원군 사무소장) 95·4·1일부